

고소설 반동인물의 후대적 변화양상 연구

김 수 봉*

차 례

- | | |
|---------------------------|----------------------|
| I. 머리말 | III. 변화 양상이 갖는 의미 |
| II. 반동인물의 신소설화 양상 | 1. 존재양상의 확대와 사회상 |
| 1. 존재양상의 변화 | 2. 조력자의 변화와 사실적 현실인식 |
| 2. 반동인물의 조력자와 그 획득 양상의 변화 | 3. 기능의 약화와 향유의식 |
| 3. 반동인물의 기능 변화 | IV. 마무리 |

1. 머리말

고소설에서 신소설로의 이행이나 변화양상은 김태준과 임화가 “신문학이 전통문학과는 역사적으로 단절되어 있다”¹⁾거나 “동양의 근대문학사는 서구문학의 수입과 이식 문화의 역사”²⁾라고 단정한 이래 백철³⁾, 전광용⁴⁾ 등 많은 사람들에 의해 지속적인 관심과 주목을 받아 왔다.⁵⁾ 그 결과 신소설과 고소설의 상

*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 1) 김태준, 『조선소설사』, 학예사, 1939, 245쪽.
- 2) 임화, 『문학의 이론』, 학예사, 1940, 827쪽.
- 3) 백철, 『조선 신문학사조사』, 수선사, 1948.
- 4) 전광용, 『한국 소설 발달사』 下, 고대 민족문화 연구소, 1967.
- 5) 신동욱, 개화기 소설에 반영된 신문화 수용의 태도, 『한국 현대문학론』, 서울,

관 관계 규명에는 나름대로 상당한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반동인물에만 주목하여, 고소설 반동인물의 후대적 변화나 계승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한 연구 성과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고소설의 반동인물이 지닌 특징적 여러 요소가 개화기 신소설에 어떻게 계승되었는지 고소설과 신소설의 요소별 대비를 통하여 차이점과 공통점을 추출하고 이를 근거로 계승과 극복의 특징적 관계와 이들이 갖는 의미를 究明해 보고자 한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범위는 가정소설과 애정소설로 한정하고⁶⁾, 구체적인 연구의 대상도 다음의 작품으로 한정한다.

고소설은 가정소설로서 사씨남정기, 정진사전, 장화홍련전, 김인향전, 콩쥐팥쥐전, 정을선전, 조생원전 등을 대상 작품으로 하고, 애정소설로서는 숙향전, 숙영낭자전, 권용선전, 백학선전, 운영전, 춘향전, 채봉감별곡, 흥백화전 등을 대상 작품으로 삼는다.⁷⁾

그러나 신소설은 아직 어떤 하나의 주제를 앞에 놓고 그것만을 깊이 파고든 작품은 적으며 여러 가지 주제가 함께 어우러져 開化期의 시대의식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⁸⁾ 그러므로 新小説은 보는 각도에 따라, 또 어떤 요소를 중시하는냐에 따라 작품의 성격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小説 내의 여러 요소 중에서 家族 구성원 간의 葛藤 문제가 다른 요소에 비해 중심적 요소로 부각되는 작품을 가정소설

박영사, 1971.

이재선, 『한국 개화기소설 연구』, 서울, 일조각, 1972.

조동일, 『신소설의 문학적 성격』, 서울대 출판부, 1973.

송민호, 『한국 개화기소설의 사적 연구』, 일지사, 1986.

김중하, 개화소설의 문학회학적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 논문, 1985.

등의 저서와 논문 등 많은 연구가 있었다.

6) 그 이유는 본고의 논지 전개 과정에 있어서 고소설 반동인물의 여러 특징을 필자가 이미 파악한 바 있는 ‘고소설의 반동인물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3)에서 차용함으로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7) 이들의 출전과 성격은 필자의 ‘고소설의 반동인물 연구’ 6쪽을 참조할 것.

8) 전광용, 『신소설 연구』, 새문사, 1990, 20쪽.

로, 남녀간의 애정문제가 중심적 요소로 부각된 작품을 애정소설로 보고 이들을 대상 작품으로 삼고자 한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開化期 新小說 중 家庭小說이라 할 수 있고 서사단락에 있어서 작품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품은 치악산, 귀의성, 빈상설, 춘외춘, 흥도화 등⁹⁾이 있다. 그리고 애정소설로 인정되는 작품은 추월색, 금강문, 안의성, 화세계, 화의혈, 일념홍, 춘외춘, 흥도화 등¹⁰⁾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념홍은 한문에 국문을 현토한 소설로서 다른 작품의 문체와 구분되기에 제외하고, 춘외춘, 흥도화도 시각에 따라 가정소설로 볼 수도 있기에 가정소설로 분류한다.

II. 반동인물의 신소설화 양상

고소설 반동인물과 신소설 반동인물의 동이점은 이들이 선·후 관계에 있는 소설이란 점에서 고소설에서 신소설로의 변화 양상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대상 작품을 중심으로 반동인물의 존재양상, 반동인물의 조력자와 그 획득양상, 반동인물의 기능 등에 나타난 고소설 반동인물과 신소설 반동인물의 동이점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1. 반동인물의 존재양상

고소설과 신소설에 등장하는 반동인물은 어떤 동이점을 가졌는지 먼저 그

9) 치악산 : 한국개화기 문학총서, 신소설.번안(역)소설 2, 아세아문화사, 1978

귀의성 : 상동 상동 1, 상동

빈상설 : 상동 상동 상동

흥도화 : 상동 상동 3, 상동

춘외춘 : 개화기문학 신소설전집, 계명문화사, 5, 1987.

10) 화의혈 : 한국 개화기 문학총서, 신소설.번안소설, 5, 아세아문화사, 1987.

화세계 : 상 동.

추월색 : 개화기문학, 신소설전집, 2, 계명문화사, 1987.

금강문 : 상 동. 13권.

안의성 : 상 동. 14권.

존재양상의 측면에서 살펴 보기로 한다.

고소설 반동인물의 존재양상부터 파악해 보면 고소설의 반동인물은 주동인물과의 상대적 위치에서 볼 때 그 종류가 첩실, 계모, 2처, 부·시부, 권력자, 소유자의 6종류이며, 이들 중 가정소설의 반동인물은 모두 주동인물에 비해 신분이 낮거나 위치가 낮으며 애정소설은 모두 신분이 높거나 위치가 높다.¹¹⁾ 반동인물의 목적은 경제 및 가권독점, 애정독점, 자녀의 혼인 주도(가부장권 행사), 일방적 애정달성(권력자의 권력남용)의 4종류이다.(26-43)

반동행위의 방법은 간통조작 및 살인누명, 임신 및 음란누명, 권력남용을 통한 박해, 가부장권 행사를 통한 애정 방해 및 혼인 강요 등의 4종으로 나뉘어진다.(44-60)

반동행위의 내역은 부정하고 악독한 여자로 낙인 및 누명을 씌워 가정에서 축출, 애정방해, 수청강요, 강제혼인 등의 4종류로 나뉘어진다.

반동행위의 결과는 패배와 화해 그리고 성공의 3종류로 나뉘어진다.(83) 그러나 여기서의 성공은 다만 반동인물이 추구하던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결과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주동인물이나 객관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동인물의 양해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결과라는 점에서 화해라는 결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반동행위의 결과는 명목상 3종류로 나뉘어 지지만 실질적으로는 패배와 화해의 2종류로 나뉘어진다고 하겠다.

반동인물의 패배 및 성공하지 못한 원인은 반동인물의 지나친 행동, 시비의 배반, 원귀의 관청출몰, 천벌, 시비의 살신성인, 시비의 자백(엄형국문), 엄중문초, 현몽, 시비들의 충성, 지성감천, 우연, 주동인물의 지혜 등이다.(44-60)

반동인물의 등장 양상은 첫머리부터 한명의 반동인물이 등장하여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동인물을 공격하다가 결국 실패한다는 단순구조의 단순형과 두명의 반동인물이 서사의 중간 부분에 등장하여 서로 다른 목적을 추구하지만, 목적 추구의 과정상 의기 투합하여 서로 힘을 합쳐 주동인물을 공격하다가 서로 다른 원인과 방식으로 패배한다는 이중적 사건을 다룬 중층구조의

11) 줄고, 고소설의 반동인물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22~23쪽

참조. 단) 본고에서 사용되는 위의 논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이후부터는 모두 관호안에 쪽수를 표시하는 것으로 각주를 대신한다.

혼합적 중층형, 그리고 서로 관련없는 複數의 인물이 순차적으로 등장하여 별개의 목적을 위해 순차적으로 주동인물을 공격하다가 순차적으로 패배한다는 연합적 중층구조를 지닌 연합적 중층형의 3유형으로 나뉘어진다고 할 수 있다.¹²⁾

다음으로 신소설의 반동인물이 갖는 존재양상의 특징을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新小説은 古小説의 권선징악적인 주제와 일대기 중심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등장 인물을 통하여 개화 계몽사상이란 의식을 형상화 하고자 한 小説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작중의 여러 인물 중 외형상 작품 內的 사건을 주도하며 작가가 형상화 하고자 하는 사상의 주된 수행자를 주인공 즉 주동인물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주동인물에 맞서는 주된 상대자나 적대자는 반동인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먼저 新小説 중 家庭小説에 등장하는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을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춘외춘, 흥도화, 치악산의 전실 자식이나 전실 자식의 처, 귀의성의 첩실, 빈상설의 본처, 추월색의 이정임, 화의혈의 기생 선초, 화세계의 김수정, 금강문의 김경원, 안의성의 박정애는 외형상으로나마 작품 내적 사건을 주도하는 인물이고, 작가가 형상화 하고자 하는 사상의 주된 수행자이며, 작가가 애써 작품 내에서 부각시키려는 인물이기에 이들은 작품 속에서 주인공 즉 주동인물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주동인물과 상대적 내지 적대적 위치에서 주동인물과 지속적으로 그리고 가장 극심하게 대립하고 葛藤하는 인물들, 즉 치악산의 시·계모,¹³⁾ 귀의성의 본처, 빈상설의 첩실, 춘외춘의 계모 등을 반동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흥도화는 시집 가기 전의 친정 아버지, 개가해서는 홀로 있는 시어머니, 친정에 쫓겨 와서는 새로 들어온 계모가 반동인물이 된다고 하겠으며, 추월색은 주동인물 이정임의 부모, 화의혈은 이시찰, 금강문은 주동인물 김경원의 외삼촌과 구소년, 안의성은 주동인물 박정애의 시누이와 그 친구 정봉자 등을 반동

12) 줄고, 고소설 반동인물의 변모양상 연구, (초전 장관전교수 정년 기념 국문학 논총, 422-423, 425-426쪽) 참조.

13) 가정내에서 계모이면서 주동인물에 대해서는 시어머니의 위치에 있는 인물을 편의상 시·계모라 命名한다.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화세계는 주동인물인 수정과 적대적 입장에 있는 수정의 부모 및 작품 초반에 권세를 이용하여 수정을 희롱하려고 했던 구참령, 그 외의 불량배들, 그리고 수정의 재물을 탈취하려던 김도사 등을 일단 반동인물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참령은 곧 바로 개과천선하여 오히려 수정을 도와 주는 인물이 되고, 그 외의 인물은 주동인물인 김수정을 고난에 처하게 하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기는 하지만 남녀 愛情 문제에 있어서 계속적이며 직접적인 葛藤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주된 반동인물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수정의 부모는 자기 딸의 장래를 위해, 진보된 사고 방식으로 자기의 딸을 결혼시켜려 하는데 반해, 딸 수정은 구태의연하게 구습을 지켜 달갑지 않게 이루어진 혼약을 신의라는 명목으로 끝까지 성취하려고 고집한다. 이에 따라 부모와 딸 사이에는 극복할 수 없는 葛藤이 발생하고 그 葛藤은 작품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이들 인물은 보는 각도에 따라 양자가 모두 반동인물이 될 수도 있지만 작가가 수정을 통하여 자기가 추구하는 의지를 구현케 하고, 또 외형적으로나마 수정이 사건을 주도하는 주동인물로 형상화 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된 반동인물은 수정의 부모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동인물과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나타난 신소설 반동인물의 종류는 본처, 계모, 시어머니, 첩, 시·계모, 권력자(어사·시찰), 외삼촌 부부, 연모자, 연적, 부모의 10종류로 나뉘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반동인물의 신분적 특징을 보면, 애정소설의 반동인물은 주동인물에 비해 그 신분이 높거나, 위치가 높으며, 가정소설의 반동인물은 높고 낮음이 혼재되어 있다.

다음으로 위의 반동인물이 수행하는 반동행위 과정을 통하여 반동인물의 목적, 반동행위의 방법과 내역, 성패 등의 특징을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반동인물의 행위를 보면, 귀의성의 본처는 남편의 애정을 독점하기 위해 노비를 금전과 면찬을 조건으로 買受하여 첩실과 그 자식을 살해하도록 사주한다. 그 결과 자신의 목적은 일단 달성하지만 살인의 죄리가 잡혀 첩실의 부모에게 피살된다.

촌외촌의 반동인물인 계모는 편협하고 시기심 많은 천성으로 전실 자식을 구박하다가 끝내 두쟁이 등과 결탁하여 전실 자식을 호색한에게 팔아 넘기고 가권을 독점하려고 한다. 그러나 주동인물의 계교와 유모의 도움으로 실패하고

사단이 드러나서 결국 日警에 체포되어 일당 등과 함께 일망타진된다.

홍도화의 전반부 반동인물인 친정 아버지는 가족이나 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가장권을 행사하여 임의대로 딸을 출가 시키지만 얼마 되지 아니하여 사위가 죽음으로써 실패한다. 두번째 반동인물인 개가한 집안의 시어머니는 자신의 미신을 부정하는 며느리와 갈등하다가 결국 며느리를 친정으로 내치고 며느리의 친정 계모가 꾸민 계교에 속아서 며느리를 더욱 미워하며 아들과 관계를 끊게 한다. 그러나 그 후로부터 아들이 원인 모를 병으로 앓게 되자 드디어 후회하게 되고 또 며느리의 외삼촌이 꾸민 계교에 의해 친정 계모의 비행이 드러나자 다시 며느리를 받아 들이게 된다. 세번째 반동인물인 친정의 계모는 가권을 독점하기 위해 시집에서 쫓겨온 전실 자식을 걸으려는 위해 주는 척하며 실질적으로는 금전 등으로 시비를 買受하여 외간 남자와 교통하는 편지를 조작하는 등 주동인물을 부정한 여자로 누명을 씌워 집에서 축출하며, 또 자신의 홀로된 오빠와 공모하여 전실 자식이 외가로 쫓겨가는 중간에서 이를 유인 납치하여 오빠의 처로 삼도록 한다. 그러나 주동인물의 자살 시도와 주동인물 외삼촌의 계교에 의해 모든 사단이 드러나서 반동인물은 결국 체포된다.

빈상설의 반동인물인 첩실은 가권을 탈취하고 독점하기 위해 남편에게 아당하고 자신에게 잘 보이려는 노비와 공모하여 다른 노비를 빼들었다고 본처를 만단으로 모함한다. 또 반동인물은 노비를 금전으로 買受하여 심복으로 만들고 두쟁이 등과도 공모하여 본처를 팔아 넘기려 한다. 그러나 주동인물 남동생의 계교로 실패하고 반동인물은 결국 경무청에 투옥된다.

치악산의 반동인물 시·계모는 가권 독점을 위해 며느리를 미워하던 중 속량을 조건으로 며느리의 처단 방법을 제공하겠다는 노비와 공모하여 마침내 며느리의 간통현장을 조작함으로써 시아버지로 하여금 며느리를 축출하게 만든다. 그러나 며느리의 계집종 검홍과 친정 아버지의 계교에 의해 패가 망신하게 된다. 그리고 이로 인해 남편이 얻게 된 송도집이란 첩을 질투하여 노비를 시켜 송도집을 보쌈하여 죽이려 하다가 오히려 자기 딸을 보쌈하게 하는 등 모든 계교가 실패하여 친정으로 축출된다. 그러나 사돈덕의 도움으로 모든 일이 잘 해결되고 또 며느리와 아들의 용서로 함께 모여 평화롭게 살게 된다.

화의혈의 반동인물인 이도사는 삼남의 절개 높은 기생 선초의 명성을 듣고 그녀의 절개를 꺾어 자신을 자랑할 기회를 노리던 중 자신의 좋은 구변으로 삼남 지방의 시찰이 되자 삼남 지방에 내려가 자신의 위세를 빌어 선초를 농락하려고 한다. 그러나 선초의 피병으로 실패하자 그녀의 아버를 동학당으로 몰아 감금하고 그것을 미끼로 선초를 위협하여 결국 백년가약의 서약서를 써주고 선초의 절개를 꺾게 된다. 그러나 그가 선초와의 약속을 어기자 선초가 자살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이시찰의 비행이 폭로되어 결국 그는 구속된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구속되어서도 선초의 몽중 출현으로 고통을 당하며 또 석방된 후에도 선초로 위장한 선초의 동생 모란에게 놀림을 당하는 등 패가망신하고 비참한 신세로 떨어지게 된다.

금강문의 반동인물인 외삼촌은 주동인물이 물려받은 재산을 가로챈 후 금전을 약속한 인물에게 주동인물을 시집 보내기 위해 주동인물의 기존 약혼자와 파혼이 되도록 방물장수 등과 공모하여 다른 남자와의 부정 조작(편지)과 약혼자 살해 시도 등을 조작하여 결국 파혼 당하게 한다. 그러나 사건 내역이 조작된 것임을 우연히 알게 된 주동인물의 교장선생님 부인이자 약혼자의 친척 부인의 고소에 의해 구속된다.

그리고 주동인물을 연모하는 반동인물 구소년은 주동인물의 외삼촌을 돈으로 買受하여 주동인물의 약혼을 파혼 시키는 것까지는 성공했으나 주동인물의 도망과 우연에 의한 사건 진상의 발각으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된다. 그리고 금강산의 금강문에서 우연히 만난 주동인물에게 연정을 하소연 하다가 실패하자 주동인물을 해치려 한다. 그러나 주동인물의 약혼자에게 현장이 발각되어 서로 싸우던 중 주동인물에게 상처만 입히고 도망하여 폭도(본문에 기록된 내용에 의거한 용어임)의 무리에 들어갔다가 결국 日警에 체포된다.

추월색의 반동인물인 부모는 딸의 정혼자 집안이 몰락하고 생사가 불명하자 딸의 장래를 위해 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딸을 다른 곳으로 시집 보내려 한다. 그러나 딸이 야반 도주함으로써 실패하고 결국 일본에 유학하고 있는 딸에게 학비를 보내주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는 딸이 우연히 상봉하게 된 처음 정혼자와의 결혼도 허락하게 된다.

화세계의 반동인물인 부모는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승낙했던 딸의 결혼

상대자가 몰락하자 딸의 행복을 위해 딸을 다른 곳으로 시집보내려 한다. 그러나 딸(주동인물)은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약속이라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반동인물과 맞서다가 야반도주함으로써 반동인물의 시도는 실패한다. 그리고 야반도주한 딸은 수 많은 우여곡절 끝에 옛 정혼자를 찾아서 결국 결혼에 성공한다.

이상의 반동행위 과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반동인물의 목적은 애정독점, 가권전횡(미신적 신앙 고수), 경제 및 가권독점, 일방적 애정 성취(애인 탈취), 기생농락, 재물탈취, 딸의 장래 행복 달성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반동행위의 방법과 내역은 간통과 통정 누명을 씌워 부정한 여자로의 낙인, 신앙의 갈등으로 인한 며느리의 축출, 노비 등을 買受하여 주동인물 살해, 가장권을 행사하여 자녀의 결혼 강요, 권력을 이용하여 절게 있는 기생의 농락, 인신매매단과 결탁하여 주동인물 賣渡, 하수인을 買受하여 주동인물을 부정하고 악독한 인물로의 조작, 동조세력을 買受하여 애정강요하기 등이라 할 수 있다.

반동행위의 결과는 위의 반동행위 과정에서 본 바와 같이 반동인물의 목적이 일단 성공한 작품도 있다. 그러나 반동인물의 근본 목적이 달성된 작품은 없다는 점에서 보면 결국 모두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반동인물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동인물의 아량으로 원래의 관계를 회복하는 작품도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화해로 끝난 작품도 있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신소설 반동인물의 결말은 결국 실패와 화해의 2종으로 나뉘어진다고 하겠다.

반동행위의 성패를 결정 짓는 원인은, 집안에 다친 재앙과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깨달음, 주동인물 부모의 탐문에 의한 사실 탄로, 주동인물 외삼촌의 탐색, 주동인물 남동생의 계교, 주동인물 계집종의 실신성인과 주동인물 아버지의 계교, 반동인물의 방탕한 생활과 경찰에의 체포, 주동인물에 관한 악몽과 주동인물 동생의 계교, 우연과 경찰의 추적, 주동인물의 강력한 반발과 가출, 주동인물 유모의 도움 등이 주된 원인이다.

다음으로 반동인물 등장양상의 구조를 살펴 보면, 흉도화는 반동인물(부모)이 작품 첫머리부터 등장하여 주동인물과 갈등하다가 실패하자 다시 새로운 반동인물(시어머니)이 나타나 주동인물과 갈등을 일으키고 그와 병행하여 또 다른 반동인물(친정집의 계모)이 등장하여 주동인물과 심각한 갈등 관계를 형

성함으로써 주동인물이 격는 시련의 중첩을 통한 고난의 극대화를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연합적 성격과 혼합적 성격을 동시에 지닌 중층형이라 할 수 있다.

빈상설과 안의성은 첫머리부터 한명의 반동인물이 조력자를 동원하여 주동인물에게 어떤 시련을 얼마만큼 행사하다가 어떻게 실패하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단순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격의 작품에는 화의혈과 춘외춘 등이 있다.

치악산은 첫머리부터 반동인물이 등장하여 주동인물과 갈등하다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실질적으로는 패배) 후에는 또 다른 주동인물과 갈등하다가 결국 패배한다는 내용이다. 특징은 반동인물은 한 명인데 그와 갈등하는 주동인물 측의 인물은 바뀐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동인물의 측면에서 보면 결국 한명의 반동인물이 작품 전반에 걸쳐서 주동인물과 갈등한다는 점에서 단순형이라 할 수 있다.

화세계는 첫머리부터 반동인물이 등장하여 주동인물과 갈등하나 전반부 이후부터는 주동인물과 지속적으로 갈등하는 반동인물은 없고 다만 주동인물의 고난을 가중시키는 여러 명의 반동인물이 순차적으로 등장하여 주동인물과 갈등한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연합적 중층형이라 할 수 있다. 특징은 반동인물이 두명 정도에 그치지 않고 각기 다른 목적을 지닌 여러 명의 반동인물이 순차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금강문은 첫머리부터 두명의 반동인물이 등장하여 각기 다른 목적으로 반동행위를 하다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파멸한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혼합적 중층형이라 할 수 있다.

귀의성은 앞부분의 중반부터 한명의 반동인물이 등장하여 끝까지 주동인물과 갈등하다가 패배한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반동인물이 등장하기 전에 상당한 사건의 전개가 있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반동인물이 등장하는 작품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반동인물이 한명만 등장하여 주동인물과 끝까지 갈등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만 보면 이 작품도 단순형이라 할 수 있다.

추월색은 두 명의 반동인물이 순차적으로 등장하여 주동인물을 차례대로 꺾어버리다가 차례대로 패배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연합적 중층

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반동인물의 등장 양상은 단순형, 연합형, 혼합형, 연합형+혼합형으로 나눌 수 있다.

위에서 파악된 고소설과 신소설 반동인물의 존재양상을 대비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공 통 점	차 이 점	
		고 소 설	신 소 설
종류	첩실, 계모, 부, 시부, 권력자	소유자, 2처	외삼촌, 연모자, 본처, 시어머니
목적	경제 및 가권독점 애정독점 자녀의 혼인 주도 임의적 애정성취 여성편력(농락)	*	가권전횡 재물 탈취
방법 및 내역	부정하고 악독한 여자로의 낙인 및 누명씌워 가정에서 축출, 애정방해, 수청강요, 강제 혼인 등	*	신앙의 갈등으로 인한 머느리 축출. 인신매매단과 결탁하여 주동 인물을 팔아넘김. 동조세력을 賈受하여 애정강요.
성패의 원인	반동인물의 지나친 행동, 시 비의 배반, 시비의 살신성인, 시비의 자백, 임중문초 현몽, 시비들의 충성, 우연, 주동 인물의 지혜 등	원귀의 관청출몰, 천벌, 지성감천.	경찰의 추적, 유모의 도움, 주 동인물 남동생의 계교, 주동인 물 부모의 탐문과 추적, 주동 인물 외삼촌의 탐색, 주동인물 의 반발과 가출.
결말	실패 및 화해	*	*
등장 양상	단순형 연합적 중층형 혼합적 중층형	*	연합 + 혼합적 중층형

이상에서 나타난 결과를 정리해 보면, 반동인물의 종류에 있어서 신소설은 고소설 반동인물의 6 종류 중에서 소유자와 2처를 제외한 4 종류를 계승했으나 여기에 고소설에서는 없던 외삼촌, 연모자, 본처, 시어머니 등 4 종류의 반동인물을 추가하였다.

반동인물의 목적은 고소설의 반동인물이 가진 5 종류의 목적 모두가 신소설에 계승되었으며, 신소설은 여기에 가권전횡, 재물 탈취 등 두 종류를 추가하였다.

반동인물의 반동행위 및 내역은 고소설의 반동인물이 행한 모든 방법이 신소설에 계승되었으며, 신소설은 여기에 신앙의 갈등으로 인한 며느리 축출, 인신매매단과 결탁하여 주동인물 팔아 넘기기, 동조 세력을 買受하여 애정강요하기 등 4 종류를 추가하였다.

반동인물의 등장 양상은 고소설의 반동인물 등장 양상이 모두 신소설에 계승되었으며, 신소설은 여기에 연합형과 혼합형이 함께 어우러진 새로운 양상을 하나 더 추가하였다.

결말의 형태는 크게 보아 고소설과 신소설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고소설의 결말 형태가 신소설에 그대로 계승되어 수용되었다고 하겠다.

성패의 원인은 고소설의 원귀 판청 출몰, 천벌, 지성감천 등 3 종류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소설에 계승되었으며, 신소설은 여기에 경찰의 추적, 유모의 도움, 주동인물 남동생의 계교, 주동인물 부모의 탐문과 추적, 주동인물 외삼촌의 탐색, 주동인물의 반발과 가출 등 6 종류를 추가하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고소설 반동인물의 존재양상은 반동인물의 종류와 성패의 원인에서 몇 종류가 제외되기는 했으나 거의 대부분 신소설에 계승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신소설의 입장에서는 고소설의 반동인물 존재양상을 대폭적으로 수용하면서 여기에다가 필요에 따라 요소마다 몇 종류씩 추가하는데 그쳤다고 하겠다.

2. 반동인물의 조력자와 그 획득 양상의 변화

고소설과 신소설에 등장하는 반동인물의 조력자와 그 조력자의 획득 방법에는 어떤 동이점이 있는지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소설의 반동인물부터 조력자와 그 획득 양상을 파악해 보면 사씨남

정기와 정진사건의 반동인물은 자신의 육체를 이용한 향락을 제공하는 댓가로 외간남자를 끌어 들여 심복으로 삼고 또 금전 등으로 시비를 買受하여 하수인으로 삼는다. 이런 점에서 조력자는 외간 남자와 자신의 시비라 할 수 있고, 획득의 방법은 육체적 향락 제공과 금전 제공 등이라 할 수 있다.

장화홍련전과 콩쥐팥쥐전은 반동인물과 ㅈㅂ 내지 ㅈ녀 관계에 있는 조력자가 이심전심으로 의기투합하여 서로 협조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조력자는 자기 소생의 자녀라 할 수 있고 획득의 방법은 의기투합이라 할 수 있다.

김인향전은 시비나 거지 노파 등 자신의 주변인물을, 조생원전도 시비나 주변인물 등을 금전으로 買受하여 하수인으로 삼는다. 이런 점에서 조력자는 시비와 자신의 주변인물이라 할 수 있고 획득의 방법은 금전 제공이 주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숙영낭자전은 첩 매월을 조력자로 볼 수도 있으나 매월은 자의적으로 반동행위를 감행한다는 점에서 조력자보다는 보조적 반동인물로 볼 수 있고 조력자는 매월이 금전으로 買受한 돌쇠란 외간남자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조력자는 외간남자라 할 수 있고 획득의 방법은 금전제공이라 할 수 있다.

권용선전은 금전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시비를 買受하거나 혈연적 유대관계에 의한 의기투합으로 혈연적 상위 권력자의 조력을 받는다. 이런 점에서 조력자는 시비와 그 주변인물 그리고 혈연적 고위층이라 할 수 있고 획득의 방법은 금전제공이나 혈연적 의기투합이라 할 수 있다.

백학선전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手下 관리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자신의 일에 협조하게 한다. 이런 점에서 조력자는 수하 관리라 할 수 있고 획득의 방법은 권력을 이용한 강압이라 할 수 있다.

홍백화전과 채봉감별곡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벼슬의 승진이나 등용을 미끼로 주동인물의 부모를 조력자로 만든다. 이런 점에서 조력자는 주동인물의 부모라 할 수 있고 획득의 방법은 관직 등용의 미끼라 할 수 있다.

이외에 숙향전, 운영전, 춘향전 등은 반동인물이 특별한 조력자 없이 자신의 위치에서 행사할 수 있는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여 주동인물을 꺾박한다. 이런 점에서 이들 작품에는 구체적인 조력자나 조력자 획득의 수단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고소설 반동인물의 조력자는 자신의 자녀, 시비, 유모, 그리고 외간남자, 혈연적 고위층, 手下官吏, 주동인물의 부모 등이고 획득의 방법은 금전 제공, 육체 제공, 혈연적 의기투합, 관직 등용의 미끼 등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신소설 반동인물의 조력자와 그 획득의 방법을 파악해 보면, 금강분은 주된 반동인물과 보조적 반동인물 그리고 조력자의 구분이 어려우나 주동인물의 외삼촌을 주된 반동인물로 보았을 때 구소녀는 보조적 반동인물이 되며 주동인물의 시어머니가 될 인물은 이들의 조력자로 볼 수 있다. 반동인물은 모함과 속임수로 조력자를 자극하고 그로 인하여 조력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본의 아니게 반동인물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조력자는 주동인물의 장래 시어머니이고 획득의 방법은 모함과 속임수라 할 수 있다.

귀의성은 재물과 면천을 조건으로 시비와 노복을 買受하여 하수인으로 삼는다. 이런 점에서 조력자는 시비와 노복이며, 획득의 방법은 금전 제공과 면천의 조건이다.

춘의춘은 반동인물이 인신매매단에게 전실의 딸을 팔아 넘김으로써 쌍방간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조력자는 인신매매단이고 획득의 방법은 금전적 이익 제공이라 할 수 있다.

홍도화는 금전 등으로 시비와 그 주변인물을 유혹하고 또 자신의 친정 오빠를 재혼시켜 준다고 유혹하여 하수인이 되게 한다. 이런 점에서 조력자는 자신의 시비와 친정 오빠이고 획득의 방법은 금전 제공과 재혼의 미끼이다.

빈상설은 시비가 힘있는 주인에게 아첨하여 잘 보이기 위해 스스로 조력자가 되기도 하고 색주거나 뚜쟁이 등은 주동인물을 팔아넘김으로써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조력자가 된다. 이런 점에서 조력자는 자신의 시비나 뚜쟁이 등이고 획득의 방법은 금전제공 등이 주종이다.

안의성은 반동인물이 주동인물의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돈과 아첨으로 買受하고 이들을 모함 등의 속임수로 속여서 본의 아니게 조력자가 되게 한다. 이런 점에서 조력자는 주동인물의 시누이와 시어머니이고 획득의 방법은 금전 제공과 속임수이다.

치악산은 시비와 노복 등을 면천과 금전 제공 등의 조건으로 買受하여 하수인으로 삼는다. 이런 점에서 조력자는 시비와 노복이고 획득의 방법은 금전 제공과 면천의 조건이다.

이외에 화세계, 추월색, 화의혈 등은 특별한 조력자도 없고 조력자의 획득 방법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신소설 반동인물의 조력자는 자신의 시비, 노복 그리고 자기 주변의 친정 오빠, 인신매매단, 두쟁이 등과 주동인물의 시어머니와 시누이 및 시비 등이다. 획득의 방법은 금전 제공과 면천, 재혼, 속임수 등이다.

위에서 파악된 고소설과 신소설의 조력자와 조력자의 획득 방법이 갖는 동이점을 대비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공 통 점	차 이 점	
		고 소 설	신 소 설
조력자의 종류	시비 자녀	유모, 외간남자, 혈연적 고위층, 하급관리, 주동인물의 부모	주동인물의 시어머니, 친정오빠, 인신매매단, 두쟁이
획득방법	금전 제공 의기투합	육체적 향락 제공, 관직 등용 미끼	면천, 속임수, 재혼 기회 제공

이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고소설 반동인물의 조력자는 시비와 자녀의 2종류가 신소설에 계승되었으나 유모, 외간남자, 혈연적 고위층, 하급관리, 주동인물의 부모 등 5종은 제외되었으며, 신소설은 여기에 주동인물의 시어머니, 친정 오빠, 인신매매단, 두쟁이 등 4종류를 추가하였다.

조력자의 획득 방법은 고소설의 금전 제공, 의기투합의 2종류만 계승되고 육체적 향락 제공, 관직 등용 미끼의 2종은 제외되었으며, 신소설은 여기에 면천, 속임수, 재혼 기회 제공의 3종을 추가하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고소설 반동인물의 조력자와 조력자의 획득 방법은 신소설에 크게 계승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으며, 신소설의 입장에서는 고소설 반동인물의 조력자를 수용하기보다는 새로운 조력자와 조력자 획득 방법의 개발에

주력했다고 하겠다.

3. 반동인물의 기능 변화

고소설과 신소설에 등장하는 반동인물은 그 역할에 있어서 어떤 동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소설부터 살펴 보면 첫째, 반동인물은 명목상의 부수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서사적 사건 전개에 있어서는 유형에 관계 없이 사건의 발단을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하고, 또 각 단계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사건 발생과 사건 전개의 계기를 부여한다. 뿐만 아니라 반동인물은 주동인물의 고난을 확대하여 주동인물의 행위에 정당성을 확보하여 주는 등 실질적으로 사건을 주도하고 사건을 전개시키는 주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97--98쪽)

둘째, 반동인물은 그 구성 자체에서부터 반동행위의 성패 그리고 결말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요소가 현실과 밀접한 관련성을 띠거나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닌 요소로 구성됨으로써 작품의 구성과 사건 전개에 긴밀성을 부여하여 독자로 하여금 강한 긴장과 흥미유발은 물론 관심 고조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11쪽)

셋째, 반동인물은 주동인물과 함께 작품이 표면적으로 내세우고자 하는 당위적인 권선징악적 주제 구현에 기여하며, 그 역할은 보상적 성공형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주동인물보다 더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반동인물은 구체적인 반동행위 과정 등을 통하여 현실은 당위와는 달리 선이 패하고 악이 승리하는 경우도 많음을 보여 준다. 뿐만 아니라 반동인물은 계모에 의한 진실 자식의 수난, 제도의 모순에서 오는 본처의 고난, 시부모의 횡포로 인한 떠느리의 고난, 권력자의 횡포로 인한 여성의 애정 수난 등에 관련된 현실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바로 잡으려는 주제의 정당성과 필연성을 보다 부각시켜 준다고 하겠다. (131쪽)

다음으로 신소설의 반동인물이 작품 속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앞의 반동인물 존재양상 파악에서 언급된 내용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귀의성은 첫머리에 김승지의 첩실 획득 과정이 첨가되어 있으나 등장인물간

의 본격적인 갈등과 사건의 발단은 반동인물인 본처가 질투심으로 남편을 좌천 시켜 첩실(주동인물)과 결별하게 함으로써 시작되고, 첩실이 찾아 오자 양탈을 부려 첩실을 집에서 축출하여 첩실에게 시련을 가함으로써 사건이 전개되고 갈등이 확대된다. 그리고 첩실이 겨우 안정을 찾자 첩실의 거처를 염탐하고 하수인을 買受하여 첩실의 제거를 도모함으로써 갈등이 심화되어 사건은 위기로 치닫게 되고 또 첩실을 살해함으로써 사건은 절정에 달하게 되며, 이러한 사단이 우연에 의해 밝혀지고 반동인물이 징치됨으로써 모든 사건이 끝나고 갈등도 해소된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주동인물은 반동인물의 횡포에 대해 자살을 시도하는 등 약간의 저항은 있으나 거의 일방적으로 반동인물에게 당하기만 함으로써 동정적 관심을 유발할 뿐 사건의 전개에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한다.

이에 반해 반동인물은 사건의 발생에서부터 사건의 결말까지 사건을 주도하고 사건을 전개시키며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사용되는 반동인물의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과 수법은 독자의 저항적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며, 이들이 징치되는 결말은 전개 과정의 혐오감에서 오는 긴장의 순간적 해소를 통해 증폭된 해방감과 카타르시스를 가져다 준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반동인물의 우연하지만 철저한 패배는 악은 반드시 패배해야 된다는 전통적인 권선징악적 주제를 부각시켜 준다고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주동인물과 반동인물 모두의 죽음이란 결말은 잘못된 제도에 의해 희생되는 여성의 비극적 현실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화의혈은 반동인물이 어떠한 악행을 저지르다가 어떻게 파멸하는가 하는 반동인물의 악행이 내용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주동인물과의 갈등은 반동인물의 여러 악행 중 반동인물의 비열함을 돋보이게 하는 중요한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작품을 주동인물과의 상관 관계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본고의 성격상 사건 전개 과정을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의 상관 관계로만 파악해 보면, 반동인물이 주동인물의 빼어남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동인물을 어찌해 볼 뜻을 품으로써 갈등의 단초를 마련하고 반동인물이 비열한 방법으로 삼남시찰이 되어 주동인물에게 수청을 요구함으로써 갈등이 확대되고 사건이 전개되며, 수청 요구가 실패하자 권력남용을 통하여 수청을 강요함

으로써 갈등이 증폭되고, 또 주동인물의 정조를 유린한 후 배신함으로써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게 되며 주동인물의 자살과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한 반동인물의 몰락으로 갈등은 끝나고 사건이 해결된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주동인물은 피동적인 입장에서 반동인물의 뜻에 따라 당하기만 할 뿐 실질적으로 사건을 전개시키거나 갈등을 증폭시키지도 못하며 단지 수난의 모습을 통하여 독자들의 동정적 대상이 될 뿐이라 하겠다.

이에 비해 반동인물은 모든 사건의 중심에서 사건을 유발하고 사건을 진행시킨다. 그리고 사건의 진행 과정에 나타난 반동인물의 비열한 행위와 수난은 독자들의 분노와 저항적 관심을 유도하여 반동인물의 말로에 대한 기대를 통한 강한 흥미를 유발한다. 뿐만 아니라 반동인물의 비열한 행위와 철저한 패배는 지배계층의 횡포에 대한 강한 비판과 저항 그리고 권선징악이란 주제 형성은 물론 권력자들의 횡포에 의한 여성의 애정 수난 등의 현실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현실에 대한 비판과 저항 의지를 보여 준다고 하겠다.

이외에도 빈상설, 흥도화, 춘외춘, 치악산, 등 처첩간이나 계모와 전실 자식간의 갈등 등 주로 가정내적 갈등을 다룬 가정소설과 남녀간의 애정 삼각관계에서 보편적 인간 관계를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려는 안의성 등 반동인물의 악행이 내용의 중심을 이루는 작품은 약간의 가감이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인 기능의 측면에서 보면 위의 귀의성 등과 大同小異하다고 하겠다.

이외에 추월색, 금강문, 화세계, 등의 작품은 주동인물이 처음 맺은 결연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겪으며, 또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서 주로 주동인물의 고난을 중심으로 구성된 애정소설이다. 이들 작품 속에서 반동인물이 담당하는 역할을 살펴 보면, 반동인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동행위를 하는 인물도 있고 중간에 주동인물의 조력자로 변신하는 반동인물도 있으나, 대체로 작품마다 반동인물은 단일 인물이 아니며 여러 명의 불특정 다수의 반동인물이 등장하여 계속해서 주동인물에게 시련을 가하고 주동인물은 우연에 의해 고난을 벗어나다가 마침내 모든 고난을 해결하고 드디어 최종 목표인 처음의 결연을 성취한다. 이런 점에서만 보면 이들 작품은 주동인물의 행위가 중심을 이루고 주동인물에 의해 사건이 전개

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선 주동인물은 수동적인 측면에서 반동인물의 공격을 당하기만 할 뿐 구체적인 반격이나 해결책을 모색하여 실천하지 못하며, 또 우연과 구원자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나서도 다음 단계의 사건을 발생시키거나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행위의 주체가 되지도 못한다. 이에 비해 불특정 다수의 반동인물은 나름대로의 목적을 위해 계속해서 주동인물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 새로운 사건을 발생시켜 사건을 진행시키며, 또 우연에 의해 패배함으로써 주동인물이 추구하는 전통적인 정절과 결연이라는 당위적 주제를 구현하게 한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반동인물은 모든 사건의 발생과 전개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은 물론 주동인물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을 통하여 독자들의 긴장과 패배에 대한 기대로 인한 흥미를 유발하며, 또 이들의 패배가 주동인물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주제 구현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고소설과 신소설 반동인물의 기능을 대비해 보면, 둘다 명목상 부수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중심에 서서 사건 전개를 주도하고 사건의 전개에 강한 긴장과 흥미를 유발함은 물론 작품이 표면적으로 내세우고자 하는 당위적 주제 구현에 기여한다는 점은 大同小異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고소설은 한 두명의 반동인물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주동인물과 갈등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신소설은 처음의 반동인물이 나중에는 주동인물의 조력자가 되거나 처음부터 여러 명의 불특정 다수의 반동인물이 순차적으로 등장하여 주동인물을 공격하는 등 반동인물의 등장 방식과 행위 양식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서 고소설의 반동인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동인물과 지속적인 갈등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사건의 유기적 상관 관계를 통한 지속적인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데 비해, 신소설의 반동인물은 불특정 다수가 서로 인과적인 관계도 없이 거듭 교체됨으로써 사건의 유기적 긴밀성과 긴장감을 감소 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신소설의 개별적인 반동인물이 작품 내에서 담당하는 역할은 고소설의 반동인물에 비해 어느 정도 약화되고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Ⅲ. 변화 양상이 갖는 의미

위에서 파악된 고소설과 신소설 반동인물의 동이점을 중심으로 반동인물의 변화양상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요소별로 살펴 보기로 한다.

1. 존재양상의 확대와 사회상

고소설 반동인물의 존재양상이 신소설로의 계승이나 소멸, 그리고 신소설에 새로운 반동인물의 첨가 등은 당대 소설 향유자들에 의한 사실성 획득 有無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반동인물의 존재양상은 결국 향유계층의 사회의식과 당대의 사회상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런 전제 아래 고소설 반동인물과 신소설 반동인물의 존재양상이 보여주는 동이점은 어떤 사회의식과 사회상을 보여주는지 인과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반동인물 종류의 측면부터 살펴 보면, 신소설은 고소설의 반동인물 중에서 첩실, 계모, 부·시부, 권력자 등의 반동인물을 계승했다. 이것은 법적 금지에도 불구하고 신소설의 시대에도 여전히 첩실이 허용된 사회 분위기였고¹⁴⁾ 계모가 전실 자식에게 그리고 부·시부와 권력자 등이 자식이나 힘없는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린다는 것이 독자들에게 여전히 사실성을 획득할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고소설의 소유자와 2차가 신소설로 계승되지 못한 것은, 갑오경장 이후 신소설 시대에는 이미 四民 평등과 일부일처제가 제도화되었고 또 외세의 침입과 항거, 그리고 외국의 선진 문물의 수입 등을 통하여 민중의식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였기¹⁵⁾ 때문에 이들의 반동인물은 사실성을 획득할 수 없어서 계승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14) 『국사대사전』, 삼영출판사, 1984, 24쪽. ‘갑오개혁’에 의하면 처첩제도의 금지가 공식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군국기무처에서 의결된 안건은 한반도 실행에 착수해 보지 못한 채로 완전히 사문화된 것도 많았다”는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는 거의 법적 효력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15) 한우근, 개정판 『한국통사』, 을유문화사, 1990, 457~467쪽 참조.

다음으로 신소설에서 외삼촌, 연모자, 본처, 시어머니 등의 반동인물이 새롭게 추가된 원인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외삼촌 등 주동인물과 혈연적 관계에 있는 인물이 추가된 것은 가문과 혈연적 관계를 중시하고 혈연적 인물을 무조건 지지하는 입장에 있던 고소설 시대와는 달리 신소설 시대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혈연적 관계를 언제든지 무시할 수 있다는 의식이 사실성을 획득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혈연보다는 금전을 중시하는 의식의 발로라 하겠다.

연모자가 반동인물로 추가된 것은 애정당사자 중시의 결혼제도와 의식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고소설 시대에는 중매를 통해서 부모의 뜻에 따라 결혼이 이루어졌고 또 대부분 조혼이었기 때문에 연모자가 실제로 있을 수도 없었다. 이에 비해 신소설 시대는 조혼의 법적 금지¹⁶⁾와 결혼 당사자만의 의사에 따른 결혼도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이에 따라 사랑과 失戀이 상당한 설득력을 지닐 수 있었음은 물론 특히 짝사랑의 경우에는 그 사랑을 성취하기 위한 비도적인 행위마저도 상당한 사실성을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연모자가 신소설에 첨가되었다고 하겠다.

본처가 첨가된 것은 신소설 시대가 인간 본성을 중시하고 사회를 사실적으로 보려는 의식이 확대된 시대였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즉, 고소설 시대의 본처는 항상 '선'의 입장에서 善만을 구현해야 된다고 믿었기에¹⁷⁾ 반동인물로 등장해서도 안되고 등장할 수도 없는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소설 시대는 이미 그러한 관념이 무너지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본처가 반동인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남편이 시앗을 보면 돌 부처도 돌아 앉는다는 속담에서도 알 수 있다.) 인정하는 사실적 안목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이 반동인물로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신소설에 시어머니가 반동인물로 첨가된 것은 시어머니의 절대적 명령과 며느리의 무조건적인 복종만이 존재하는 시대에서 며느리가 부당한 시어머니에게 맞서는 것은 당연하고 부당한 시어머니가 반동화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향유계층에게 인식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6) Ibid.

17) 이광규, 『한국가족의 사적연구』, 일지사, 1990, 237~244쪽 참조.

그리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반동인물의 종류가 신소설에 와서 늘어난 것은 신소설 시대가 고소설 시대보다 그만큼 더 복잡하고 다단한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반동인물 종류의 변화양상은 신소설 시대가 고소설의 시대상을 대체로 계승하는 한편 고소설 시대와는 다른 금전과 애정 당사자 중시, 며느리의 인권과 인간 본성 중시 등 새로운 시대상과 사회의식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반동인물 목적의 측면을 살펴 보면, 고소설의 반동인물이 추구하던 모든 목적이 신소설에 그대로 계승되었으며, 신소설은 여기에 가권전횡과 재물탈취를 추가하였을 뿐이다. 이처럼 고소설 반동인물의 목적이 신소설에 그대로 계승었다는 것은 고소설 반동인물의 목적이 그만큼 보편성을 지녔음은 물론 신소설 시대가 고소설의 시대상과 그만큼 동질적인 사회상을 내포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가권전횡과 재물탈취가 추가된 것은 신소설 시대가 단순하게 고소설 시대의 사회적 상황을 그대로 계승하는데 그치지 않고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신소설 시대는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 계모와 전실 자식, 처첩 등의 경제나 가권독점을 위한 갈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시대에는 있을 수 없었던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가사 결정권 장악을 위한 갈등도 일어날 수 있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가권전횡 등이 첨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재물탈취도 고소설 시대에는 가문을 중시하는 사회의식이나 연좌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성격상 가족 구성원이나 혈족들 간에 서로 쟁탈할 만한 가치있는 것으로 인식되지 못했다고 하겠다. 그러나 구한말 개화기에는 서구의 물질 문명이 밀려 들어오고 권력이 권위를 잃어가는 시기에 그래도 지속적인 권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금전밖에 없음을 실감하게 되었을 것이다.¹⁸⁾ 이런 과정에서 신소설 향유층에게도 금전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을 것이고 금전 탈취 문제는 대표적인 사회문제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금전 탈취 문제도 자연스럽게 반동인물이 추구하는 목적에 편

18) 이것은 갑오개혁이나 흥법 14조 등에서 금전적인 측면을 특히 중시한 데서도 알 수 있다.

입되게 되었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반동인물의 목적이 계승되거나 첨가된 것도 결국 그 당대 향유계층의 사회의식과 그들에 의한 사실성 획득 여부가 그 관건이었다는 점에서 가권전횡과 재물탈취의 첨가는 금전 중시와 고부간의 家事決定權 쟁탈 등이 보편화된 신소설 시대의 문체적 사회상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반동행위의 방법 및 내역도 고소설의 방법과 내역이 모두 신소설에 계승되었고 다만 신소설은 여기에 몇 가지의 새로운 방법이나 내역이 덧붙었는데 그쳤다. 이처럼 방법과 내역이 동일한 것은 신소설 시대가 아직 고소설 시대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고소설 시대의 사회상과 의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신소설에 신앙으로 인한 머느리 축출, 동조세력을 買受하여 애정강요 하기 등이 첨가된 것은 고소설 시대와는 전혀 다른 변화된 사회상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즉, 그 당시는 고소설 시대와는 달리 여러가지 신앙의 대상이 있었고 또 그 신앙에 대한 사람 나름의 관념도 서로 달랐던 시대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인신매매단이 확보하는 혼탁한 사회이자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고 買受할 수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라는 것이 당대 소설 향유층에게 사실성을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반동인물의 등장양상도 고소설의 방법이 그대로 신소설에 계승되면서 다만, 신소설에 고소설의 연합형과 혼합형이 함께 어우러진 복잡한 형태가 하나 더 첨가되었을 뿐이다. 이것은 고소설 시대보다 신소설 시대가 사회적 발전 과정상 당연한 귀결로서 점점 복잡 다단해짐에 따라 그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복잡 다단해져서 그러한 사고방식에 맞는 작품을 쓰려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말의 양상은 고소설과 신소설이 모두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사회와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신소설 향유 계층이 소유한 세계관이 여전히 권선징악적이고 운명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성패의 원인을 살펴보면, 고소설의 등장 요소 중 현실성이 부족한 원귀출몰이나 천벌, 지성감천과 같은 요소만 제외되고 나머지는 모두 신소설에 계승되었으며 여기에 새로운 요소가 몇 가지 첨가되었다. 이들 중 실패 원인의 동일

함 즉, 동일한 등장인물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내역의 반동행위를 감행했을 때 실패나 화해하는 원인이 동일하다는 것은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이나 사건을 보는 눈이 동일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으로서 이것은 고소설 향유자와 신소설 향유자의 의식적 바탕이 동질적인 데서 기인된 결과라 하겠다.

그리고 현실성이 없는 원인들이 제외된 것은 신소설의 시대는 이미 천상과 인간계가 분리되면서 귀신이 인간계를 간섭한다는 환상적인 세계관이 약화되고 인간의 일은 인간의 힘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사고방식이 정착된 결과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신소설에 경찰의 추적이나 외삼촌의 추적 등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만이 추가된 것도 당대의 사회의식 즉, 인간 관계의 문제나 사건에는 경찰의 추적 등이 필요하고 또 개입되어야 한다는 당대의 사실적 사고방식의 반영 결과라 하겠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반동인물 존재양상의 변화는 신소설 시대가 고소설 시대의 문제적 사회상을 대부분 계승했음은 물론 고소설 시대에 비해 애정 당사자와 인간본성 그리고 금전 중시 등의 사고방식과 고부간의 가사 결정권 쟁탈 및 인신매매단이 행행하는 사회상, 또 인과적이고 과학적인 문제 해결방식 등의 사실적 현실인식 등 좀더 복잡다단해진 새로운 시대의 사회상과 사회인식 등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2. 조력자의 변화와 사실적 현실인식

조력자의 획득이나 그 변화양상 등도 변화된 사회상과 거기에 대한 향유계층의 인식 변화에 따른 결과라는 점에서 앞의 반동인물 존재양상의 변화가 갖는 의미와 큰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특히 향유계층의 현실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그 의미를 추출해 보고자 한다.

고소설 반동인물의 조력자와 그 획득의 방법은 각각 7종과 4종 중에서 각각 2종씩만 신소설에 계승되고 나머지는 제외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인과분석을 통하여 요소별로 그 의미를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조력자의 종류에 있어서 반동인물의 시비와 자녀가 신소설에 계승된 원인을 살펴 보면, 자녀는 반동인물에게 가장 가까운 혈연적 존재이고 인류의 보편적

인 측면에서 시공을 초월해서 어쩔 수 없이 조력자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존재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신소설 시대에도 여전히 현실성을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계승되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시비도 신소설 시대부터는 법적으로 금지 내지는 폐지된 제도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법적 위력의 약화와 시비를 거느린 勢家들의 기득권 고수로 인하여 이때 까지도 시비가 어느 정도 존속되는 현실이었고¹⁹⁾ 또 奴, 主의 관계도 前代까지의 법적 順致에 의하여 자녀에게 미치지 못하지만 반동인물과 인간적인 측면에서 아주 가까운 관계가 유지되던 시대였다. 이에 따라 시비들은 자기가 모시고 있던 주인의 부탁과 물질이나 면천 등의 유혹이 있을 때는 조력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반동인물의 조력자로서 자녀나 시비가 계승된 것은 이들을 당연시하는 당대 현실의 사실적 반영의 결과라 하겠다.

이와는 달리 고소설의 유모, 외간남자, 혈연적 고위층, 하급관리, 주동인물의 부모 등이 신소설에 계승되지 못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유모는 신소설 시대에도 있었지만 고소설 시대만큼 신분적 인간적 관계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다만 경제적 관계로만 맺어지는 것이 보통인 시대였기 때문에 유모의 이유 없는 조력은 사실성을 획득할 수 없어서 계승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외간남자가 계승되지 못한 것도 不道德한 남녀 관계가 반동인물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행위로 인식되던 시대에서 남녀의 만남이 자연스러워지고 남녀의 불륜적 행위가 반동인물의 반동적 행위를 특별히 두드러지게 하거나 반동인물의 육체 제공이 조력자의 조력 획득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시대는 이미 아니었고 또 향유자들이 아니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계승되지 못했다고 하겠다. 그리고 혈연적 고위층이나 하급관리, 주동인물의 부모가 계승되지 못한 것은, 신소설 시대는 일제의 침략으로 인하여 이미 고소설 시대의 고위층과 같은 절대 권력을 지닌 권력층도 없었고, 나라가 망해 가는 위기 상황에서 고소설과 같이 상위 권력자의 명령에 억지로 따르거나 출세를 위해 자식을 배신하고 반동인물에게 협조해서 출세할 수 있는 세상도 이미 아니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사실성을 획득할 수 없어서 계승되지 못했다고 하겠다.

19) 한우근, 앞책.

그러므로 신소설에서 제외된 조력자들도 결국 신소설 시대의 시대 현실을 사실적으로 반영한 결과라 하겠다.

다음으로 신소설에 주동인물의 시어머니와 친정오빠, 인신 매매단, 뚜쟁이 등이 첨가된 원인을 파악해 보면 아래와 같다.

주동인물의 시어머니가 반동인물의 조력자로 등장하여 자신의 며느리를 학대하고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반동인물의 하수인 역할까지 담당하게 된 것은 서구 문명의 유입으로 전통적 가족제도가 붕괴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게 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역학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결과라 하겠다. 즉, 전대까지의 주, 종 관계 내지는 일방적 명령과 절대 복종이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이들의 왜곡된 가정 내적 역학 관계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사실 그대로 보여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조력자로서 반동인물의 친정 오빠가 첨가된 것은, 당대는 고소설 시대와는 달리 시집을 가서도 친정의 사람들과 밀접한 교류가 가능한 시대였으므로 혈연적 누이가 이권으로 부탁할 때 친정 오빠의 조력은 다른 사람의 조력보다 훨씬 더 사실성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친정 오빠의 등장은 당대 현실을 사실적으로 반영한 결과라 하겠다.

그 다음 인신매매단, 뚜쟁이 등의 첨가도 당대 현실의 사실적 반영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조선 시대에도 노비들을 사고 파는 인신매매 등이 있었으나 부녀자를 창녀로 팔아 넘기는 인신매매단이 있었다는 역사적 기록은 없다. 그런데 신소설 시대에는 사회의 혼란과 변화에 따라 술집 등의 유흥 업소가 급격히 늘어나고 여기에 종사할 여성 인력이 전대보다 더욱 많이 필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신매매 금지가 법제와 되어²⁰⁾ 여성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자 사회 기강의 해이를 틈타 이들을 조달하고 이익을 챙기려는 인신매매단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게 되었고 또 이들의 행동이 공공연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인신매매단이나 뚜쟁이 등이 반동인물의 금전 등에 買受되어 조력자로 등장한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도 사실적인 당대 현실의 반영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조력자 획득 방법의 측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 「국사대사전」, 앞책, '감오개혁' 참조.

조력자의 획득 방법에 있어서 금전제공과 의기투합이 계승된 것을 시대적 상황과 관련지어 보면, 구한말은 청렴과 청빈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전대의 유교적 가치관이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관이 정립되기도 전에, 서구의 물질만능주의적 사고방식이 여과 없이 밀려 들어오고 우리 나라는 개화라는 명목하에 서구문명 제일주의에 빠져²¹⁾ 무조건 서구문명을 동경하고 수용함으로써 당대는 물질만능주의적 사고방식이 상당히 팽배한 시대적 현실이 되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신소설 시대는 고소설 시대에 비해 경제적인 측면이 더욱 중시되고 물질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생의 목적이 되다시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물질적 금전 제공은 어떤 수단보다도 악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금전제공의 계승도 당대 현실의 사실적 반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혈연적 의기투합이란 조력 방법의 계승도 천륜적 상황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보편성을 띠 수 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당대 현실의 사실적 반영의 결과라 하겠다.

다음으로 고소설의 육체적 향락 제공 등의 수단이 신소설에서 제외된 것은, 앞서서도 본 바와 같이 이 시대는 이미 유흥업소 등이 많이 생겨났고 돈만 있으면 사랑이 아닌 육체적 관계는 언제든지 가능한 시대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조력자의 획득수단으로서 금전 제공 등의 방법은 사실성을 획득할 수 있으나 단순히 육체적 향락 제공을 통하여 하수인으로 買受한다는 것은 사실성을 획득할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계승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직 등용의 미끼가 조력자 획득의 수단에서 제외된 것도 신소설이 유행하던 구한말과 한일합병 무렵에는 국권이 일제에 넘어가고 나라가 망해가는 시점이었기에 관직등용을 좌우할만한 힘을 가진 인물도 없었고 또 관직이 매력적인 위치도 될 수가 없었다. 이런 점에서 관리등용 등은 당대인들에게 이미 매력적인 유혹의 수단이 될 수 없었다고 하겠다. 그래서 전대의 관직등용 미끼라는 조력자 획득의 수단이 사실성을 잃고 사라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육체적 향락 제공이나 관직등용 미끼 등의 수단이 제외된 것도 당대 현실의 사실적 반영의 결과라 하겠다.

21) 김중하, '개화소설의 문학기회학적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 논문, 1985, 16-40쪽 참조.

다음으로 신소설에 와서 면천, 속임수, 재혼기회 제공 등의 수단이 첨가된 원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894년 갑오경장에서 공식적으로 노비제도를 없애도록 했으나, 실질적으로 신소설 시대인 1900년대 초까지도 勢家에서는 여전히 노비를 거느리고 있었고, 또 노비들은 법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신분제 철폐가 법제화되고 노비들이 각성 함에 따라 前代에 비해서는 면천이 보편화되고 또 흔히 있을 수 있는 당대의 현실이었기에 노비에 대한 주인의 면천 조건은 상당히 설득력을 가졌음은 물론 누구에게나 그럴듯하다는 사실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²²⁾ 이런 시대적 상황 때문에 면천의 조건이 신소설에 와서 새로이 첨가되었다고 하겠다.

속임수의 수단이 첨가된 것은, 속임수가 고소설 시대에는 없었고 신소설 시대에 와서만 나타난 현상은 아니지만, 시대의 변천에 따른 자연적 현상으로 신소설 시대는 고소설 시대보다 좀더 복잡다단한 사회상을 연출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의식 구조도 좀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속임수도 더욱 보편적인 범죄 수단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으로 인하여 속임수가 범죄의 보편적 수단으로 사실성을 획득하여 신소설에 첨가되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재혼기회 제공의 미끼도 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의 변화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갑오경장 이전까지만 해도 여자의 再嫁와 三嫁는 법으로 금하고 자녀안에 올려 그 자식에게까지 규제를 가했기 때문에²³⁾ 남녀를 불문하고 재가하기를 꺼렸고 또 하기도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갑오경장 이후 이러한 법적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재가의 마땅한 상대를 구하기 어려워져 재가하지 못하는 것은 있었을지언정 제도적 사회적 제재나 의식적 측면의 문제 때문에 재가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당대 사회의 현실을 고려해 본다면 홀아비에게 마땅한 재혼기회를 제공해 주겠다는 조건은 당사자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재혼 기회 제공 등의 수단이 신소설에 조력자 획득의 수단으로 첨가된 것은 이러한 요소가 당

22) 한우근, 앞책.

23) 이광규, 「한국가족의 사적 연구」, 일지사, 1990, 290-298쪽 참조.

대 사회에서 사실성을 획득했기 때문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면천, 속임수 등이 신소설에 와서 조력자 획득의 조건으로 새롭게 참가된 것은 결국 당대 현실의 사실적 반영의 결과라 하겠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반동인물 조력자의 종류나 조력자 획득 방법에 있어서 고소설에서 신소설로 계승되거나 제외되고 또 새롭게 신소설에 참가된 요소들은 모두 당대 현실의 사실적 반영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실의 사실적 반영이란 당대인의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획득된 평가의 결과라는 측면에서 위의 모든 결과는 결국 당대인의 현실 인식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3. 기능의 약화와 향유의식

고소설의 반동인물이 갖는 기능은 거의 대부분 신소설의 반동인물에게 그대로 계승되었으나 반동인물 개개인의 측면에서 보면 신소설의 반동인물이 담당하는 역할은 고소설 반동인물에 비해 약간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계승된 측면부터 살펴보면, 고소설과 신소설의 반동인물이 담당하는 기능이 거의 같다는 것은 각 시대의 향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반동인물에 대한 인식이大同小異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슷한 기능은 신소설 향유자들과 고소설 향유자들의 사고방식과 현실인식의 태도 및 소설의 향유 의식이 비슷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고소설 반동인물의 기능에 비해 신소설 반동인물의 기능이 개별적인 측면에서 약화된 이유를 살펴 보면 그 원인은 작가와 독자의식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고소설의 작가들이나 작품 옹호론자들은 소설 작품이 당대 윤리 이념의 교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소설 긍정의 이유로 삼았는데²⁴⁾ 비해 신소설의 작가는 그 작품을 통하여 당대의 최대 관심사였던 개화, 계몽사상을 전파하고 또 그 실현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²⁵⁾ 그 역할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신소설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것만을 중심으로 서술된 작품은 드물고 대부분 여러 개의 주제를 한 작품 안에 다룸으로써

24) 김태준, 증보『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 24쪽.

25) 전광용, 『신소설연구』, 새문사, 1990, 20쪽.

작품의 계몽적 기능을 최대한 확대하려 했다.²⁶⁾ 그래서 작가는 한 작품 안에서 주인공은 한 사람이지만 주인공이 맞이 하는 상황은 여러 가지로 설정하여 그 상황에 알맞는 부정적 반동인물을 여러 명 등장시켜 이들의 패배를 통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고소설에서는 한명의 반동인물에게 주어졌던 기능이 신소설에서는 여러 명의 반동인물에게 나누어지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반동인물의 기능 약화는 고소설 시대와는 달라진 신소설 시대의 작가의식과 작가의 창작 태도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것을 독자의 측면에서 보면, 고소설의 독자들은 고소설을 통하여 글자를 익히고 생활 예절이나 윤리 도덕 등을 익혔으며 또 그를 통하여 삶의 방식도 배우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²⁷⁾ 이에 비해 신소설의 독자들은 신소설을 통하여 새 시대의 사상이나 삶의 방식은 물론 신문명이나 개화, 계몽사상을 접하고 또 그것을 배우기 위해 신소설을 읽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신소설 작가와 신소설 독자는 이해 관계가 서로 맞아 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들은 상호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작가는 한 작품 속에 여러 가지의 개화, 계몽사상과 당대의 이념 등의 주제를 담았고 독자들은 그러한 작품을 선호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개화와 계몽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반동인물은 여러 명이 한 작품에 등장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들에게는 각각 하나의 역할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임무가 끝나면 임무를 마친 반동인물은 사라지고 다른 반동인물이 등장하여 또 다른 역할을 맡아야만 했다. 이러한 소설 구성의 특성 때문에 신소설의 개별적인 반동인물은 처음부터 작품 끝까지 주동인물과 갈등 관계를 유지하는 고소설보다 결국 그 역할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겠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신소설 반동인물의 기능 약화는 신소설 향유계층 즉, 신소설 작가와 독자의 향유방식 및 향유의식의 변화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반동인물의 기능 약화는 신소설 향유계층의 신소설 향유의식의

26) Ibid.

27) 이원주, 고소설 독자의 성향, 『한국학논집 1집--5집』, 계명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1980, 557~573쪽 참조.

특징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반동인물의 기능 변화는 각 시대별로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바뀌어 가는 향유계층의 특징적 향유의식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IV. 마 무 리

위에서 파악된 결과를 간단히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고소설 반동인물의 신소설화 양상은,

1. 고소설 반동인물의 존재양상은 반동인물의 종류와 성패의 원인에서 몇 종류가 제외되기는 했으나 거의 대부분 신소설에 계승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신소설의 입장에서는 고소설 반동인물의 존재양상을 대폭적으로 수용하면서 여기에다가 필요에 따라 요소마다 몇 종류씩 추가했다고 하겠다.

2. 고소설 반동인물의 조력자와 조력자의 획득 방법은 신소설에 크게 계승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으며, 신소설의 입장에서는 고소설 반동인물의 조력자를 수용하는 한편 새로운 조력자와 조력자 획득 방법의 개발에 주력했다고 하겠다.

3. 전체적인 반동인물의 기능은 대동소이하나 반동인물 개개인의 측면에서 보면, 고소설의 반동인물에 비해 신소설의 반동인물은 그 기능이 어느 정도 약화되고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반동인물의 변화양상이 갖는 의미는,

1. 반동인물 존재양상의 변화가 갖는 의미는 존재양상의 변화가 당대 신소설 향유 계층에 의한 사실성 획득 여부에 좌우되었다는 점에서 이들은 신소설 시대의 사회상과 신소설 향유 계층의 특징적 사회의식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2. 반동인물 조력자의 변화는 당대 현실의 사실적 반영의 결과이며, 당대 현실의 사실적 반영이란 당대인의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획득된 평가의 결과라는 점에서 조력자의 변화양상은 결국 당대인의 사실적 현실인식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3. 고소설 반동인물에 대한 신소설 반동인물의 기능 변화는 각 시대별로 시

대적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바뀌어 가는 향유계층의 특징적 향유의식을 보여준다고 하겠다.